

전남 지자체, 기상천외한 '인구늘리기' 묘안 눈길

진도-청년을 품은 진도에서 살아보게
완도-섬마을 새댁 기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강진-빈집을 청년 일터·샵터·놀이터로 조성
무안-친환경 무안항토건축 청년 전문가 양성



완도 노화를 새댁들이 매월 1회 운영하는 섬마을장터.

전남도 '인구 희망찾기' 공모 선정

인구 190만명이 붐그런 전남도가 공모사업을 통해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에 나섰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젊은 세대의 유입 및 정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남도 공모 사업이다. 최근 공모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기상천외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눈길을 끈다. 섬마을 새댁의 기를 살리고, 빈집을 일터·샵터·놀이터로 만들어 청년들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완도군은 '섬마을 새댁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노화음과 보컬엔터가 거주하는 젊은 새댁들이 주축이 돼 매월 1회 섬마을장터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 토요장터, 야시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고 있다. 또 문화·여가·육아 정보 교류와 소통의 부채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완도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총 사업비 1억8600만원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취·창업 교육, 청년마켓터 발굴, 특산물 판촉 행사, 공동육아 및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청년을 품은 진도에서 살아보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청년 어부식당 조성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공방, 음식점 등의 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어서오게 진도 2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주 동안 진도군에 머물면서 관광, 문화예술, 농수산업 체험하며 이와 연계한 창업교육 등을 통해 진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은 지난 1월 문을 연 진도군 청년센터와 연계해 참여자들이 청년창업스쿨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마케팅, 경영기법 등 사전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강진군은 '강진 청사진(청년이 사랑하는 강진)프로젝트 빈집 활용 청년 일터·샵터·놀이터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로 빈집·빈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새로 단장해 청년 세어하우스, 청년 창업공간,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이는 빈집·빈점포로 인한 안전사고·범죄·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청년층 인구 유입

과 떠났던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강진을 동성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앙상가 상권 활성화 사업과 어우러져 강진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2018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조성사업' (4억원), 지난해 '결혼이주여성의 예비 창업공

간 누구나 가게' (1억원)와 '강진에서 모여 락(樂)' (3억6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강진청사진 프로젝트 빈집 활용 청년 일터·샵터·놀이터 조성 사업' (3억원)이 선정됐다. 무안군은 '친환경 무안항토건축 청년 전문가'를 양성한다. 청정 무안의 항토자원인 항토를 자원화 한 휴근

축 실무 강자를 통해 항토건축 청년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무안항토건축문화재단을 설립해 청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특화기반인 무안항토 휴근축 산업을 육성해 무안항토의 고부가가치 브랜드·글로벌화를 꾀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 명품 광어·전복 30% 할인 판매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지역경기 침체 내달 17일까지 수산물 특판나서



광어



전복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산물 판촉에 나섰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3차례 진행한 광어·전복 '드라이브 스루' 판매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힘내라! 광복(광어&전복)'이란 주제로 광어회와 산 전복을 30% 할인 판매한다.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73%인 연간 1만 5000t이 생산된다. 광어는 32%를 차지하고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완도산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린다. 국민 핫잡인 완도 광어는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쫄깃쫄깃해 명품으로 잘 알려졌다. 광어는 가정에서 먹기 편하도록 손질해 양념과

함께 제공한다. 전복은 신선함을 유지하고자 비닐포장 산소를 주입, 포장해 판매한다. 광어회(순살 400g)은 2만1000원(택배비 4000원 별도), 활전복 14~15미(1kg)는 3만원이다. 새롭게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 완도군 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도군이슈' (<http://www.wandoodfood.go.kr>)과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 광어회는 완도광어양식연합회 (061-555-

2333), 활전복은 한국전복유통협회(061-552-0913), 남도전복연합회(061-555-0102)로 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산물 판매 저조로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완도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고 호소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친환경인증 농가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해남군은 친환경 유기 인증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분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유기농 종합보험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금 2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67종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다.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를 4월 24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무농약 과수·채소 인증농가 중 농작물 재보

험료에 가입한 농가에도 자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으로 태풍·설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농 종합보험은 유기인증농가와 무농약 과수채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유기농가들이 재해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세어하우스 운영자 모집

순천시는 청년 인구 유입으로 활기찬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저전동 빈집을 활용한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세어하우스 활용 아이템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간리모델링과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동을 포함한 빈 집건물 8동으로 이번 총괄운영자를 선정 후 청년입

주자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입주자들은 운영자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 입주하게 된다. 세어하우스는 운영자가 제안한 아이템을 활용해 공간조성을 하게 된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사용료는 사용연적에 따라 부과된다. 아울러 입주자 워크숍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정착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